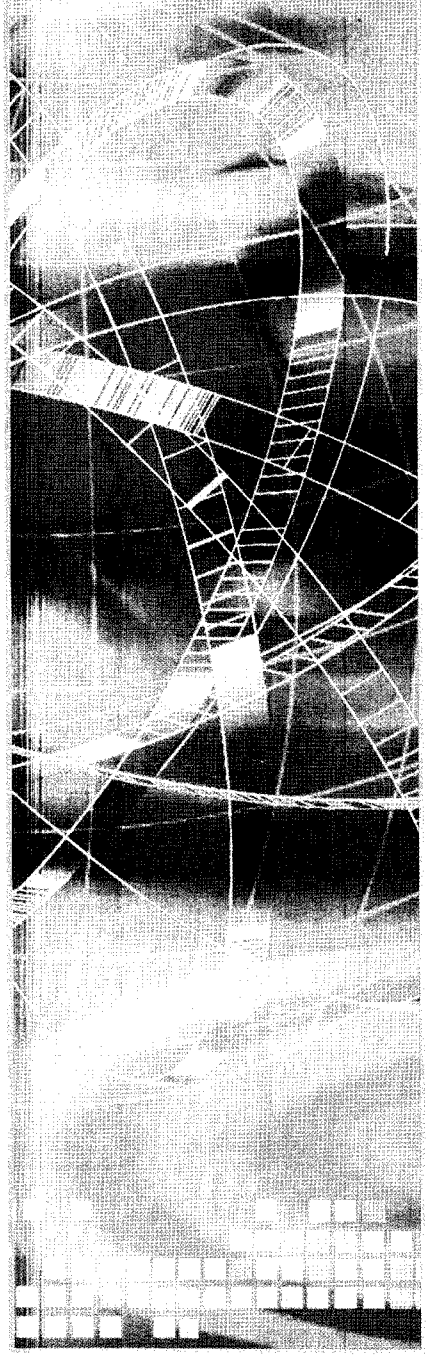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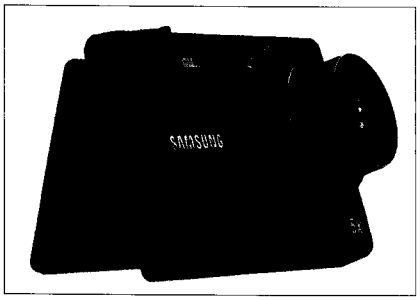
2011.11
November
카메라 및 사진기자재 뉴스



삼성전자(주)
신개념 회전형 터치 LCD 장착한 콤팩트 카메라 '미러팝' 출시



▶삼성카메라 미러팝 MV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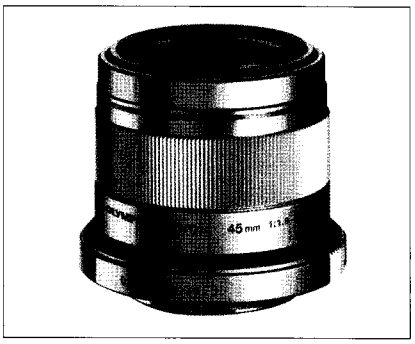
삼성전자(대표 최지성)가 세계 최초로 선보여 카메라 시장에 돌풍을 일으킨 듀얼CD 카메라의 뒤를 잇는 신개념의 콤팩트 카메라 '미러팝(모델명 :MV800)'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 카메라는 다양한 촬영 환경에서도 촬영이 용이하고, 향상된 스마트 터치와 스마트 필터 기능으로 사용자 편의성을 강화했으며, 삼성카메라 최초로 3D 촬영 기능이 적용된 것이 특징이다. 삼성은 미러팝 MV800 블랙 컬러에 이어 최근에는 화이트와 레드 컬러를 연달아 출시했다.

삼성카메라 미러팝 MV800은 IFA 2011에 소개되어 국내 출시 전부터 내외신의 주목을 받았다. 다양한 각도에서 일상의 멋진 사진을 담아 낼 수 있도록 기획된 콤팩트 카메라로, 180도 회전하는 3.0인치 대형 팝업 터치스크린을 적용하여 촬영 환경에 구애 받지 않고 어느 각도에서도 손쉽게 촬영이 가능하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미러팝 MV800 화이트와 레드는 기존 블랙과는 또 다른 미러팝의 새로운 매력을 선사하며 여성층과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좋은 반응이 예상된다"며 "향후 미러팝의 판매 확대가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올림푸스한국(주)
인물전용 미러리스 카메라 렌즈 출시



▶올림푸스의 미러리스 인물전용 렌즈

올림푸스한국(대표 방일석)은 미러리스 카메라용 인물전용 렌즈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준망원 렌즈인 'M.ZUIKO 디지털 45mm F1.8 (35mm 환산 시 90mm 초점거리 커버)'를 통해 손쉽게 아웃포커싱기능을 이용할 수 있어 가족사진과 연인 사진 등 인물 사진에 최적화된 렌즈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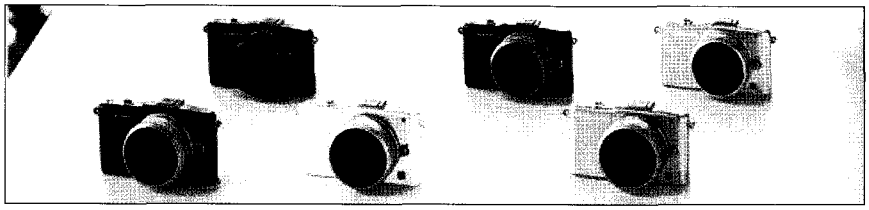
올림푸스 관계자는 "사진 초보자도 자유자재로 자동 아웃포커싱을 통한 선명한 인물촬영이 가능해 올림푸스의 새로운 '여친용 렌즈'로 큰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에도 다양한 미러리스 전용 렌즈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올림푸스는 타사 대부분의 렌즈와 호환이 가능한 '오픈 정책'으로 타사 대부분의 렌즈와 호환도 가능하고, 이번 렌즈 출시를 통해 현재까지 총 9종의 미러리스 전용 렌즈를 보유하게 되었다.

올림푸스한국(주)
미러리스 카메라 'PEN Mini' 출시

올림푸스한국(대표 방일석)은 미러리스 카메라 'PEN Mini(펜 미니, 모델명: E-PM1)'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지난 7월 발표한 PEN 3종의 신제품 중 가장 작은 사이즈의 제품으로, 무게가 가볍고 휴대성이 뛰어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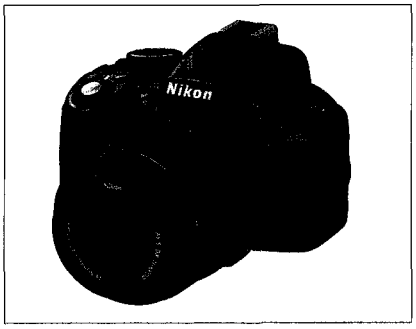
▶올림푸스의 미러리스 카메라 'PEN Mini'

것이 특징이다. 이 제품의 무게(배터리와 기본렌즈를 장착했을 때의 무게 총량)는 약 400g이며 화이트, 블랙, 실버, 핑크, 퍼플, 브라운 등의 6가지 색상으로 출시한다. 이 외에도 올림푸스 PEN만의 아트필터 총 6종과 3D 아트필터 및 풀HD 아트필터도 탑재했다.

PEN Mini는 1,200만 화소를 지원하며, 초당 5.5연사 사진 촬영이 가능하다. Full HD의 동영상 촬영과 3.0인치의 와이드 액정을 탑재했다. 또한, 무선전송 기능인 펜팔(penpal) 기능으로 핸드폰 사진을 카메라로 무선 전송 할 수 있다. 이어 미러리스 전용 렌즈뿐만 아니라, 타사의 DSLR 렌즈로 장착이 가능하다.

올림푸스한국 영상사업본부장 이극로 상무는 "스타일리시하고 아기자기한 디자인을 중요한 구매포인트로 여기는 한국 소비자들에게 PEN Mini는 훌륭한 대안이 될 것" 이라며, "감각적인 디자인과 카메라 본연의 기능까지 갖춘 펜 미니의 인기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니콘이미징코리아
보급형 스페셜 에디션 'D3100 레드' 출시



▶보급형 DSLR카메라인 니콘 D3100의 스페셜 에디션 'D3100 레드'

(주)니콘이미징코리아
Nikon 1 및 신제품 2종, 렌즈 4종 발표

▶배우 유인나가 니콘의 신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니콘이미징코리아(대표 우메바야시 후지오)는 지난 9월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렌즈 교환식 프리미엄 카메라 브랜드 'Nikon 1(니콘 원)'을 발표했다.

다양한 컬러, 미니멀 디자인 및 심플한 인터페이스를 갖춘 'Nikon 1'은 니콘의 새로운 이미지 센서와 화상처리 엔진을 비롯한 다양한 신기술이 적용된 프리미엄 카메라이다.

유효 화소수 10.1 메가 픽셀의 새로운 CX포맷 CMOS 이미지 센서와 니콘이 새롭게 개발한 화상 처리 엔진 'EXPEED 3(엑스피드 3)'를 탑재했으며 세계 최고속 AF와 세계 최다 73 포커스 포인트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디지털 카메라 초보자나 여성 사용자들도 간단한 조작만으로 고화질 사진을 손쉽게 촬영할 수 있는 '스마트 포토 셀렉터 모드', '모션 스냅 샷 모드', '정지영상 촬영 모드', '동영상 촬영 모드' 등 총 4가지 모드를 지원한다.

이외에 마이크만으로도 스테레오 음성 녹음이 가능하며, Full HD 동영상 촬영은 물론 슬로우 모션(Slow motion) 동영상 촬영도 가능하다.

'Nikon 1'에는 새로운 렌즈 마운트 규격인 '1 NIKKOR마운트'가 탑재되어 'Nikon 1' 전용 렌즈 뿐만 아니라, 별도의 어댑터를 이용하면 어안, 광각, 망원, 줌, 마이크로 렌즈 등 국내에만 60여 종이 출시된 다양한 NIKKOR 렌즈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는 'Nikon 1' 카메라 브랜드 발표외에 'Nikon 1' 전용 렌즈 브랜드인 '1 NIKKOR' 4종과 마운트 어댑터 FT1, 콤팩트 스피드라이트 SB-N5, GPS 액세서리인 GP-N100도 선보였다.

니콘이미징코리아 우메바야시 후지오 대표는 "약 100여년 동안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해왔던 니콘은 영상사진업계의 선두 기업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앞으로의 100년을 준비하기 위한 프리미엄 카메라 브랜드 'Nikon 1'의 신제품을 선보이게 됐다"며 이번 "'Nikon 1' 신제품 출시를 통해 단순한 카메라 영역을 넘어 사진에 대한 즐거움과 가치를 제안하는 새로운 영역을 창조해 나아갈 것" 이라고 밝혔다.

니콘이미징코리아(대표 우메바야시 후지오)는 보급형 DSLR카메라인 D3100의 스페셜 에디션 'D3100 레드'를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니콘에서 DSLR카메라가 블랙이 아닌 다른 컬러로 제품이 발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D3100은 풀HD 동영상 촬영이 가능하며 자동으로 피사체를 추적해 초점을 맞추는 '피사체 추적 AF', 조작의 편의성을 높인 '가이드 모드' 기능 등을 탑재해 지난해 출시 이후 DSLR 카메라를 처음 접하는 소비자 및 여성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특히 D3100은 콤팩트한 크기(약 124×96×74.5mm)에 무게는 약 455g로 가볍기 때문에 여성 사용자들이 휴대하기에 부담이 없다. 이번에 출시되는 'D3100 레드'는 기존 D3100의 핵심 기능과 디자인은 그대로 계승하면서, 고급스럽고 감각적인 레드 컬러를 더해 트렌드에 민감한 이용자들의 개성을 표현하는 패션 소품으로도 손색이 없다. 또 함께 제공되는 스트랩은 'D3100 레드'와 같은 컬러가 적용됐다.

캐논코리아컨슈머이미징(주)
새로운 플래그십 DSLR 카메라 발표

▶캐논의 새로운 플래그십 DSLR 카메라 EOS-1D X

캐논코리아컨슈머이미징(대표 강동환)은 새로운 플래그십 DSLR 카메라 'EOS-1D X'를 오는 2012년 3월에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EOS-1D X 카메라는 약 1,800만 화소 풀 프레임 CMOS센서와 캐논의 영상처리엔진을 탑재했다. 이전 세대 엔진인 DIGIC 보다 처리속도가 약 17배 빠른 'DIGIC 5+'를 2개 사용한 '듀얼 DIGIC 5+'를 탑재하여 이미지 처리속도가 빨라졌다.

또한 상용 ISO 100~51,200, 확장 시 ISO 204,800 고감도를 지원해 어두운 곳에서도 선명하게 촬영할 수 있다. 이에 EOS-1D X는 새로 개발한 CMOS 센서의 구조와 DIGIC5+ 이미지 프로세서를 통해 EOS 시리즈 중에서 노이즈 제거 기술을 실현하는데 뛰어나다.

한편, EOS-1D X는 세로/가로 촬영을 할 수 있도록 버튼의 위치나 기능 변경 등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어 파인더를 보면서 촬영할 수 있다. 그리고 캐논 카메라 중 처음으로 LAN 포트를 탑재해 네트워크를 통한 이미지 전송을 할 수 있다. 또한 '다중 카메라 시간 동기화 기능(Multi Camera Time Sync Function)'을 통해 카메라 간의 시간을 동기화시킬 수 있으며, EOS-1D X 전용 GPS 리시버인 'GP-E1'를 장착하면 GPS 기능도 사용할 수 있다.

캐논코리아컨슈머이미징(주)
광학 줌 기능 강화한 디카 5종 출시

▶캐논컨슈머이미징은 지난 9월 20일 플라자호텔에서 하반기 신제품을 선보였다.

캐논코리아컨슈머이미징(대표 강동환)은 광학 줌 기능을 강화한 콤팩트 카메라 5종을 발표했다.

캐논이 공개한 제품은 △파워샷 S100 △파워샷 SX40 HS △파워샷 SX150 IS △익서스 230 HS △익서스 1100 HS 등으로 광학 줌 기능을 강화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익서스 1100 HS'는 세계에서 가장 얇은 광학 12배 줌 카메라이며, '파워샷 SX40 HS'는 광학 35배 줌 렌즈를 장착하고 있다. 특히 파워샷 S100은 DSLR 카메라 제품인 EOS 시리즈에 사용하는 CMOS 센서의 기술이 적용되고 'F2.0' 조리개를 갖춰 어두운 환경에서도 촬영이 가능하며, 아웃 포커싱 효과도 쉽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파워샷 SX40 HS은 야외 촬영에 최적화된 것이 강점이다. 제품은 회전형 LCD를 장착,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할 수 있으며 망원촬영 중 놓치기 쉬운 피사체를 쉽게 따라갈 수 있도록 '프레이밍 어시스트' 기능도 제공된다.

또 익서스 1100 HS는 광학 12배 줌을 지원하는 콤팩트 카메라 중 세계에서 가장 얇은 두께인 21.9mm를 구현한 것이 장점이다.

이번 신제품 중 '파워샷 S100'과 '파워샷 SX40 HS'에 탑재된 '디직 5'는 이전 버전인 '디직4'보다 더 선명한 화질과 정확한 색 보정 기능을 갖췄다.